

HELPERS

VOL. 14 (2019. 03 ~ 2020. 0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SPECIAL REPORT

- 04 COVID-19가 가져온 치의학교육의 변화

NEWS

- 10 학교 소식
- 14 교실 소식

FOCUS

- 20 해외 탐방
- 23 학생 해외 교류기

RESEARCH FOCUS

- 26 이재형 교수
- 28 임현창 교수

PEOPLE

- 30 기초치의학자 신제원·이진용 교수
- 32 동문 소식과 발전기금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 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학교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약진하는 치과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치과대학장 정종혁

안녕하십니까?
 제 16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치과대학장을 맡게 된 치주과학교실 정종혁입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1967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최초의 사립 치과대학이며, 지난 54년간 3,500여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목적 가지고,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질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대학 구성원들께서 학교를 위해 이루어 온 많은 성과들을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과대학의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 대학에 대하여 역사가 있는 학교, 열성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 그리고 구성원들의 유대감이 강한 학교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생의 입학성적,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 결과, 국가고시 합격률, 교수 연구실적,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의 대학평가 순위……. 보이지 않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나타나는 요소들에 대해 학교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올해 본과 3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보는 내년부터는 실기시험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치의학 교육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가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각 치과대학

의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을 대체했듯이 미래의 교육은 학교, 강의실이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우수 대학의 강의를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서비스는 미래 교육의 대세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담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과 AR, VR 등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가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넷째, 우리가 식당, 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처럼, 경희치대 졸업생들의 역량에 대해 개업가 원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졸업생 feedback program을 통해 임상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능력 있는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평생교육프로그램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부모처럼 기댈 수 있는 모교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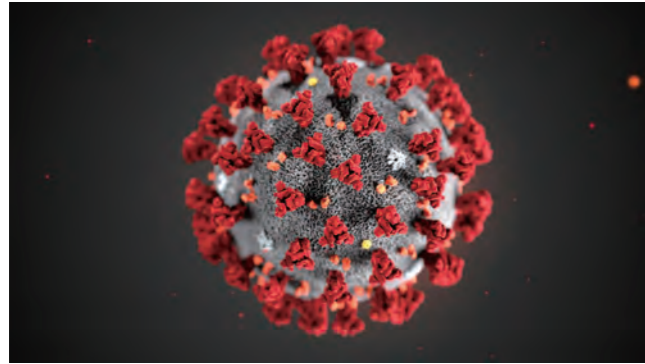
학장의 역할은 치과대학을 구성하는 학생, 교수, 동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3대 치과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약진하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6월
 제16대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정종혁

COVID-19가 가져온 치의학교육의 변화



| 편집자 주 |



2019년 연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대부분 경증에서 중증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질환으로부터 회복된다고 WHO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지만, 벌써 전세계적으로 1,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50만이 넘는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13,000명 이상이 확진자로 분류되었고, 안타깝게도 2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거나 숨을 내쉴 때 발생하는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인접한 거리에서 호흡할 때,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게 되거나 오염된 표면

에 접촉한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등 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생활 형태의 변화는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학교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당연히 여럿이 모여서 큰 강의실에서 함께 강의를 듣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학교는 지난 한 학기동안 일체의 대면 집합 강의를 불허하였고 모든 강의는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치의학 교육의 특성상, 학교에서의 이론강의 외에도, 다양한 실습강의와 병원에서의 원내실습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상으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의해 변화된 사회와 더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학교 환경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 모두 혼돈에 빠져있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느끼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경희 치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공감하기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제언



| 치의학 교육학교실 방재범 교수 |

2020학년도 우리나라 교육의 시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후 코로나) 사태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만 했다.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식이나 오리엔테이션도 갖지 못하고 대학 교육을 이수하기 시작하였고 진급생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였다. 상황의 추이를 살피느라 학기 시작은 몇 차례나 조율되며 늦어지게 되었다. 특히 병원에서의 실습 교육 기간이 많은 의학계열 교육은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실습 학생 등의 감염을 우려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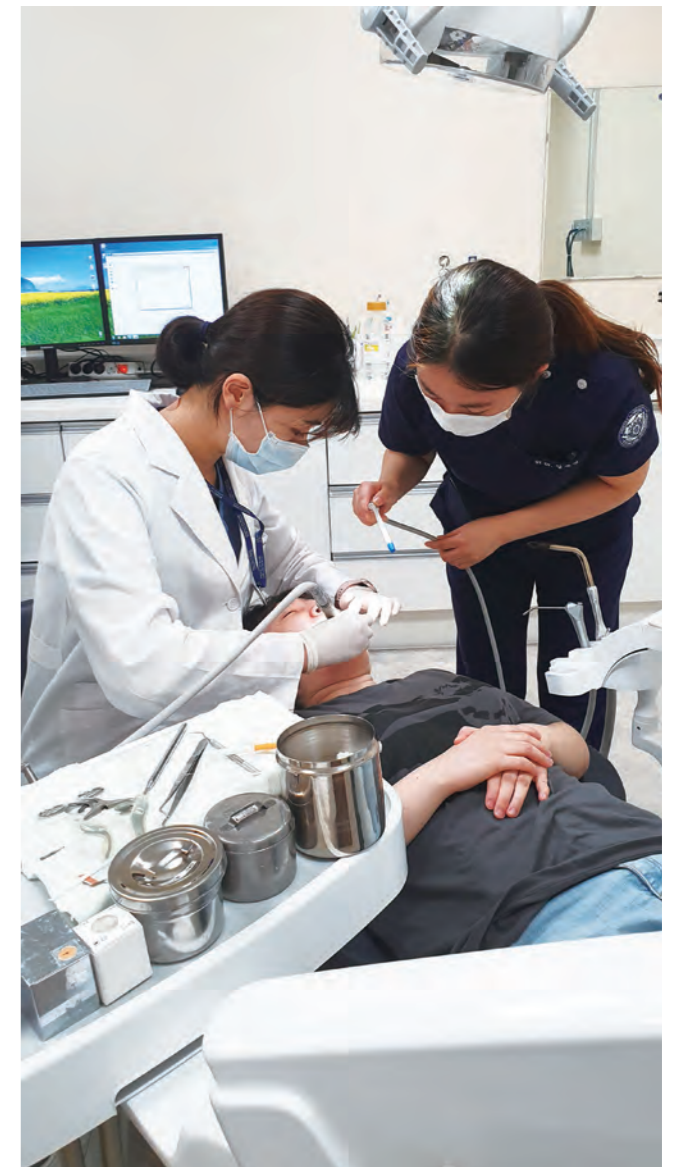
일반 강의식 교과목은 많은 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었지만 실습방식의 교과목, 즉 현장실습, 실험실, 반복수행,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터 실습 등은 직접적인 대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감염의 우려로 대체 방식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치과병원 실습의 경우 1~2개 학년 학생들 범위에서 학교 및 병원 내외 생활 관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었지만 학교 내에 실습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 학생간 거리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개학이 늦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비대면 수업방식에 대한 교수들의 적응도 쉽지 않았다. 실시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모니터로 확인하며 진행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본래 소규모 원격 화상 회의를 목적으로 한만큼 한계가 있다. 우리 치과대학 대학의 경우 한 학년 약 80명이기에 강의나 실습에 적용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에서 평가는 중간·기말 지필고사와 과제 수행, 출석 등이 일반적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평가 결과로서 성적에 민감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최근 일부 대학에서의 단체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건 때문에 대학들은 이전까지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온라인 시험을 권장에서 대면 시험을 허용하였다. 게다가 상대평가 중심에서 Pass/Fail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어떤 구체적인 교육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적용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에 적용은 온라인 평가방식의 문제나 학생들의 집단적 부정행위와 같은 사태에 따른 보원을 위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코로나사태는 이전까지 대학 교육에서 우리가 당연

시 해왔던 교육 및 평가방식에 대한 보다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여전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역량중심, 성과중심 교육패러다임과 같이 이전까지의 학문중심의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능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 및 의사소통능력 등 실제 수행 능력과 역량을 강조하는 고등교육, 특히 의학계열 교육에 대한 시대·사회적 요구에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학문중심 교육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해당 학문 분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이다. 이러한 경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방식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방식을 적용하려는 관점에서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이 지식이나 정보에 그친다면 그 차이, 즉 비대면 온라인강의 방식으로 이전까지의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이나 성과중심의 교육패러다임의 경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가 등에 초점을 둔다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역량이나 성과는 단순한 강의방식이나 지필고사, 과제만으로 완수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배워야 하며 이것과 관련된 실제적 혹은 사회에 진출하여 맞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실습이나 경험 환경에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문제 상황과 경험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수들이 경험한 온라인 교육 및 평가방식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치가 되었다.

이전까지 학문 중심의 지식과 정보에만 치중하여 강의 일변도 교육방식과 암기 능력 평가, 실습에 있어서도 현장에 방치하여 단순히 출석이나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방식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 과제, 조별 과제 수행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완성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역량 및 성과 중심 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의 일괄적인 15주 기간, 강의와 실습 배정 시수, 의무 수업 시수 등의 기준 적용 등이 보다 다양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들의 교육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역량 개발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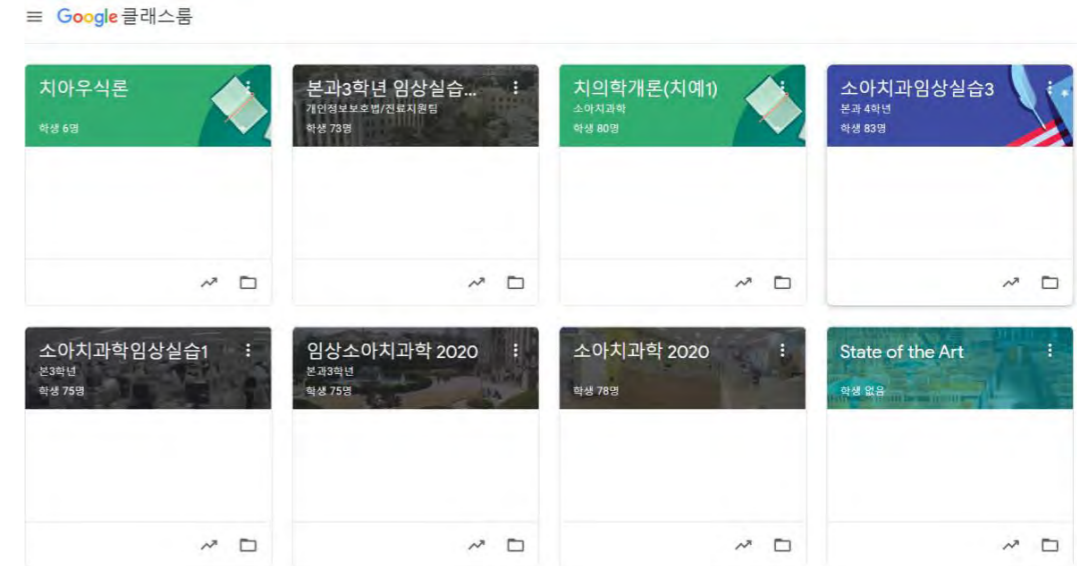
COVID-19가 바꾼 치과대학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교육에 대하여

| 소아치과학교실 최성철 교수 |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진행되리라고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 COVID-19의 여파는 우리의 생활과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생활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자제를 권고 받았으며,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치의학 제반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식과 술기습득에 있다. 특히 술기습득의 과정은 대면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preclinical lab과 같은 특수한 곳에서의 교육과 Clinic 에서의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 비대면 교육의 적용은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걱정이었으며,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기를 바랬었다.

COVID-19상황은 한 학기를 넘어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분수령에 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비대면 이론 수업과 분반 실습수업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기간의 수업은 KLAS, e-campus, Zoom 및 google class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바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였고, 기존의 Flip learning 시스템과 같이 비대면 수업이 포함된 교육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교수자와 학생간의 소통을 통하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습수업은 기초수업에서는 해부학이나 치아형태학의 경우 실습기자재를 학생들이 받아가서 교수자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실습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preclinical Lab과 같은 dental mannequin을 사용하는 실습의 경우 정상적인 실습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1학기 후반기부터 분반 수업을 통하여 실습을 재개하였다. 임상실습의 경우 예비의료인으로서 의료인과 같은 마음으로 치과병원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위생과 환자간 위생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상적인 병원실습을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업과 실습은 치의학도로서 의료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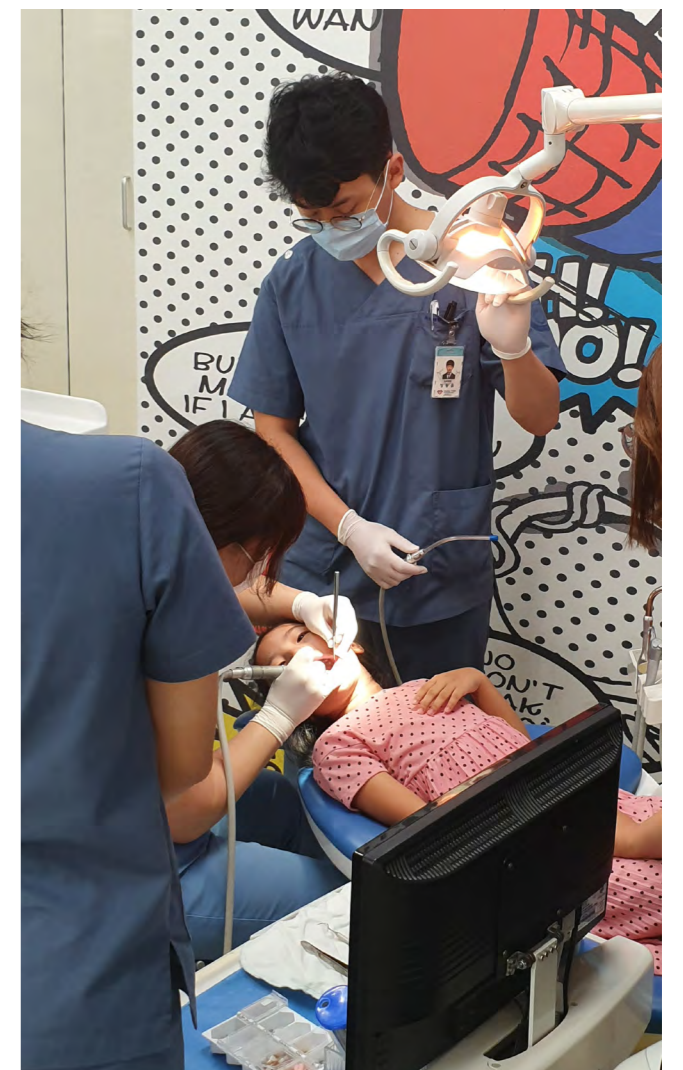


▲ Figure 1. 본인이 2020년 1학기 google class를 통하여 개설한 수업 image

되고자 하는 학생들과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노력과 열정으로 극복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일원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난 오랜 기간의 교육 시스템에서 의학계열의 교육은 역사와 전통을 중히 여기지만 한편으로 보수적인 학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교육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Flip learning이나 하브루타학습법(Chavrusa)과 같이 메타인지를 통하여 아는 것을 토의하고 공부시키는 부분이 치의학에서는 많이 부족하였지만, COVID 19 기간을 통하여 교수자는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여 토의하는 변화되는 치의학 교육환경을 만들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매번 강의에서 교수자가 줄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배포되며 나머지 모든 자료는 교수자에 의하여 전달되기 보다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향후 대면수업을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치과대학이 교수자의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자는 학습촉진자라 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학습자를 학습에 참여시키며,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육을 만드는 기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대면 실습에 관한 고찰

| 본과 3학년 성종현 |

처음에는 대부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내에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모두 당황했고, 이내 많은 사람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외식을 즐기는 것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는 것도 두려워졌고, 건강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일과 후 즐겨보던 스포츠 또한 이제는 지난 날의 얘기가 되었을 정도로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학교 역시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운 현실과는 별개로, 내심 좋아하던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항상 학업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달콤한 휴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수업과 배움의 소중함과 이에 대한 갈망을 느낀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교부터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수업, 전자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이라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서툴렀지만, 이내 모두가 적응해 나아갔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4차산업혁명을 앞당겨 새로운 세상을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디지털 콘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냈다 생각합니다. 업로드 된 강의 동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단점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비대면 수업은 즉각적인 피드백은 쉬울지 몰라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이후의 질문과 이에 대한 피드백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그 뜻 자체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사람 사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온도, 그 날의 분위기 등 사소해 보이지만 완벽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학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닌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과의 교류, 학생들과의 교류 모두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대학이나 치과대학 같이 실기와 관련한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한 학과들에서는 그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배움이었기에 학생들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이 충



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태가 없었기에, 시설을 갖출 시간도 여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활체육시설 권고만 보더라도 2m 간격 유지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면수업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등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해 완벽한 방역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다시 학생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면수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안타까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안심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도 학교 주변 확진자 발생 시 실습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다시 한 데 모여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언제든 다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배움보다 건강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생의 입장과 학습효과

| 본과 2학년 오명균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반적인 대학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 모두 처음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게 되어 출결확인, 수업 업로드 등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목마다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 여러 방식들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 어느새 비대면 강의에 적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순기능과 역기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크게 실시간 강의와 녹음된 강의의 두 가지의 형태로 실시 되었습니다. 두 수업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교에서 먼 거리에 사는 학생의 경우, 이동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편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에 대한 전달력은 대면 수업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강의는 zoom을 활용하여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직접 강의하는 형태입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간단한 질의응답을 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어 소통성을 갖추고, 출결확인도 수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편리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도가 높아 오히려 수업집중도는 대면 강의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대면 강의의 장점을 갖춘 비대면 강의이지만, 실시간 강의만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대면 강의에 비해 학습효과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녹음된 강의는 google classroom이나 klas에 교수님이 녹음된 강의자료를 올리면, 학생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자료를 올

려주는 형식이다 보니, 학생들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부족한부분에 대해 강의자료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볼 수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강의는 저작권, 수업 시간 중시 등의 이유로 정해진 시간 내에만 업로드 되기도 하여 반복 학습면에서의 장점을 갖지 못한 수업들도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강의를 들었는지에 대한 출결확인을 위해 퀴즈와 레포트 등의 과제가 많다 보니 수업 외적인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출결확인 방식으로, 강의자료에 출석 확인용 댓글을 달기도 하였는데, 강의를 듣고 댓글을 다는 것을 잊게 되면 결석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녹음된 강의만의 장점으로 인해 학습효과는 대면 수업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업의 경우, 수업 대신 레포트 대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혼자 정리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없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하면서, 다른 방식들보다 녹음된 형태의 강의가 가장 효과적인 강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강의 방식이든, 강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수님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비대면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학년도 교원 인사

신임교수발령

김미선 조교수(A) 2019.07.01. 일부
정준호 조교수(A) 2019.07.01. 일부

장기해외연수(연구년)

악안면생체공학교실 이상천(2019.03.01.~2020.02.28.)
구강미생물학교실 이재형(2019.03.01.~2020.02.28.)
치과교정학교실 강윤구(2019.04.01.~2020.03.31.)
치과약리및독성학교실 이현우(2019.09.01.~2020.08.31.)
치과교정학교실 박기호(2020.02.01.~2021.01.31.)

재임용(2019.03.01. 일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조교수(A)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윤형문 조교수(A)
치의학교육학교실 방재범 조교수(A)

승진(2019.03.01. 일부)

치과보존학교실 장석우 부교수→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최병준 부교수→교수
치과교정학교실 김수정 부교수→교수
악안면통증내과학교실 강수경 조교수(A)→부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오주영 조교수(A)→부교수
치과교정학교실 안효원 조교수(A)→부교수
구강미생물학교실 문지희 조교수(A)→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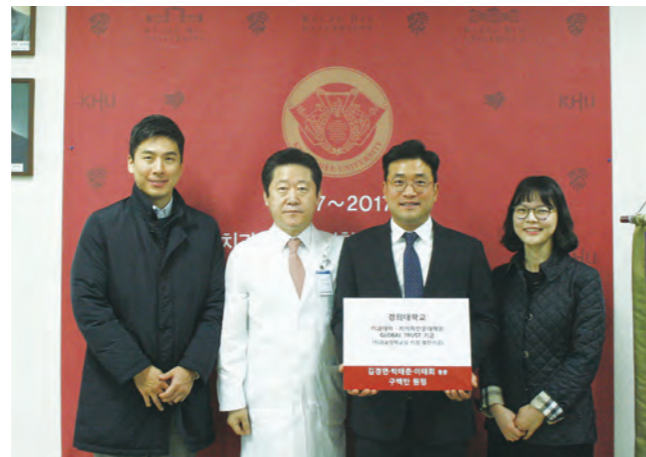
정년퇴직(2020.02. 일부)

구강해부조직학교실 신제원교수
악안면생체공학교실 이진용교수
치주과학교실 박준봉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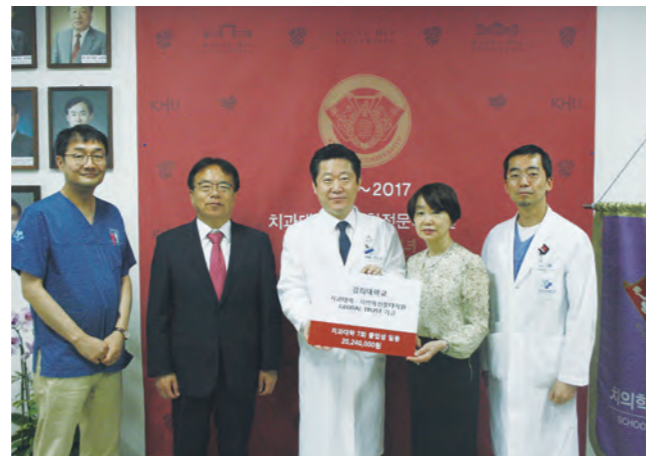
2019학년도 발전기금 전달식



· 일 시 : 2019.03.13.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김 은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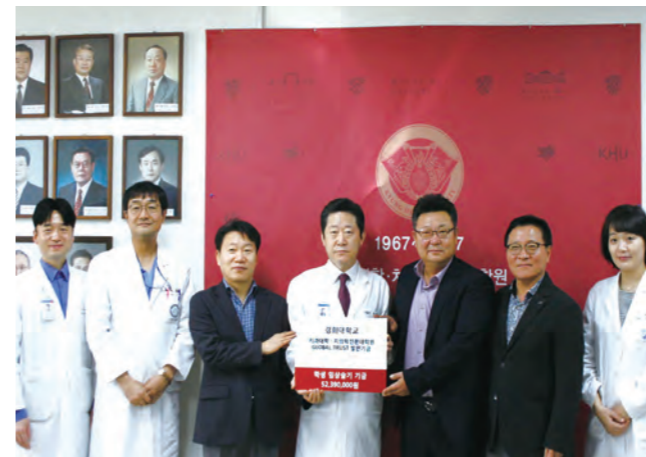
· 일 시 : 2019.03.19.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김경연 · 박태준 · 이태희 동문



· 일 시 : 2019.05.13.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치과대학 7회 졸업생 일동



· 일 시 : 2019.09.17. / 장 소 : 대학(원)장실
· 발전기금 납부자 : 안현준 · 이수연 · 이정아 동문



· 일 시 : 2019.11.28. / 장 소 : 대학(원)장실
· 사용처 : 학생임상술기 기금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 일 시 : 2019.03.12. / 장 소 : 본과 3학년 강의실

2019학년도 본과 3학년 등원식



· 일 시 : 2019.03.15.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대상 : 본과 3학년 전체

2019학년도 전체교수 워크숍



· 일 시 : 2019.09.21. / 장 소 : 치의학관 교수회의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평가단 방문



· 일 시 : 2019.10.14.~15. / 장 소 : 치의학관
· 평가단 : 조봉혜 · 김경아 · 이규복 · 허경석 · 이재일 · 김경년
· 조율위원 : 이재일 · 김경년 위원

위상제고를 위한 QS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9.04.04.~04.06. / 장 소 : 조선포털 및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Changing Paradigm in Dental Education for Future Excellence

5-6 April 2019 -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후쿠오카 대학 본교 방문 및 수료식



· 일 시 : 2019.03.18.~03.22.
· 방문기관 : 치과대학, 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마히들대학 본교 방문



· 일 시 : 2019.05.02.
· 방문기관 : 치과대학, 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홋카이도 보건대학 신입 학장 방문



· 일 시 : 2019.04.15.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교 교수 본교 특강 개최



· 일 시 : 2019.06.05. · 방문자 : Dr. Fletcher

2019학년도 MOU 체결



· 체결교 : 인도 사비타대학 - 경희대 치과대학
· 일 시 : 2019.04.11. / 장소 : 치의학관



· 체결교 : 국립타이완대학 - 경희대 치과대학
· 일 시 : 2019.05.09. / 장소 : 치의학관



· 체결교 : 도후쿠대학 - 경희대 치과대학
· 일 시 : 2019.11.12. / 장소 : 치의학관



· 체결교 : 가고시마대학 - 경희대 치과대학
· 일 시 : 2019.11.28. / 장소 : 치의학관

신임 동창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12.11. / 장소 : 대학(원)장실

기초학교실

구강해부조직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김립 조교가 발령받았다.
- 2019년 3월, 주성숙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여동문회 부회장에 위촉되었다.
- 2019년 4월, 주성숙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QS SUMMIT 및 대한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 2019년 5월, 주성숙 교수가 공직치과의사회 학술집담회에 참가하였다.
- 2019년 6월, 주성숙 교수가 공직치과의사회 임원 워크샵 및 IADR 학술대회(밴쿠버)에 참가하였다.
- 2019년 8월, 주성숙 교수가 경희대학교 교수의회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 2019년 9월, 안정진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 2019년 9월, 주성숙 교수가 공직치과의사회 학술집담회 및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워크샵에 참가하였다.
- 2019년 10월, 주성숙 교수가 경희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 2019년 11월, 주성숙 교수가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 2019년 12월, 구강해부조직학교실 의국에서 신제원 교수 정년 퇴임식을 개최하였다.
- 2020년 1월, 주성숙 교수가 국시출제위원 및 공직치과의사회 부의장에 위촉되었다.
- 2020년 1월, 주성숙 교수가 경희대학교 교수의회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 2020년 2월, 신제원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구강생리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노대현 교수가 대한통증연구학회지(Int J Pain) 편집위원에 위촉되었다.
-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대현 교수가 대한구강생물학회 총무이사에 위촉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Spinal cytochrome P450c17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uropathic mechanical allodynia: Involvement of astrocyte sigma-1 receptors. (Neuropharmacology, 2019 May 1;149:169-180.) 등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노대현 교수가 “당뇨성 신경병증 모델동물에서 표피신경섬유 소실과 구강안면 통증에 대한 상관성 및 조절인자 발굴”의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 학회발표

- 2019년 4월, 여지희 및 김솔지 연구원이 The 13th World Congress on Controversies in Neurology 학회에 참석하여 “Rapamycin reduced orofacial neuropathic pain and TNC glia activation in Trigeminal nerve-injured mice” 외 1건의 연구 주제로 2건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9년 9월, 노대현 교수가 대한통증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Chronic migraine model & mechanism”의 주제로 구연 발표하였다.
- 2019년 12월, 노대현 교수 외 2명의 연구원이 The 8th Asian Pain Symposium에 참석하여 2건의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구강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김정희 교수가 대한구강생물학회 회장에 위촉되었다.
- 2019년 3월, 김정희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인 총연합회 이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치의학분야 심의위원 및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이사에 위촉되었다.
- 2019년 3월, 김정목 교수가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편집위원에 위촉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구강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실은 Rapid multiplex molecular detection of Brucella genus, B. abortus, B. melitensis and B. suis, Japanese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76(1): 51-59 외 SCI급 논문 3편을 게재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10월, 김정희 교수가 “TIRF 현미경을 이용한 단일 EV 막단백질 정량분석법 개발”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9년 11월, 정준영 학생이 18차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에서 “Development of autophagy-specific inhibitor peptides”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하여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11월, 윤형문 교수가 SCI(E) 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4.183), Special Issue ‘Novel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Signalling Mechanisms in Bone’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2020년 2월, 윤형문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Loss of Parkin Reduces Lung Tumor Development by Blocking p21 Degradation, PLoS One, 2019 May 21;14(5):e0217037. IF= 2.766, JCR 상위 23.44%, SCI(E) 논문을 게재하였다.

- RANKL-induced Osteoclastogenesis in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Is Suppressed by Cisapride, Toxicology, 2019 Jun 15;422:95-101, IF= 3.265, JCR 상위 27.66%, SCI(E) 논문을 게재하였다.
- Peroxiredoxin 6 Inhibits Osteogenic Differentiation and Bone Formation Through Human Dental Pulp Stem Cells and Induces Delayed Bone Development, Antioxidants & Redox Signaling, 2019 Jun 10;30(17):1969-1982, IF= 6.530, JCR 상위 8.53%, SCI(E)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윤형문 교수가 연구장비지원사업 ‘치수줄기세포의 대사성 골질환에서 손상된 골로 동원, 분화, 재생을 위한 5-hydroxytryptamine 수용체의 신규 기전 연구’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구강악안면생체공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이상천 교수가 연구원 교원으로 선정되어 Wake Forest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2019년 2월, 허정선 교수가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Induce COX-2 Expression Through ROS Generation in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를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19년 7월, 이상천 교수가 Fenton-like reaction performing mineralized nanocarriers as oxidative stress amplifying anticancer agents. 외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연구비 수주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허정선 교수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이상천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허정선 교수가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에서 ‘Development of polydopamine/graphene oxide layer for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embryonic stem cells’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구강미생물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문지희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20년 2월, 이진용 교수가 정년 퇴임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Antibacterial effects of sodium tripolyphosphate against Porphyromonas species associated with periodontitis of companion animals. J Vet Sci, 2019 Jul;20(4):e333를 포함하여 국제 SCI 논문 4편을 게재하였다.

치과약리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6월, 치전원 복합학위를 마친 광규환 박사(치전원졸업, 47기)가 미국 SUNY Buffalo 치대 구강생물학 교실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수 중이다.

예방 · 사회치과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김민정 선생이 입학하였다.
- 2019년 9월, 정혜리 선생이 입학하였다.
- 2020년 2월, 박현주 선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류재인 교수가 “Utilization rate of dental implant for elderly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2019 Aug. 57(9) 496-503” 외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류재인 교수가 2019 안산시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실태조사(2019년 04~2019년 11)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류재인 교수가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연구사업 (2020.01~2020.09)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5월, 류재인 교수가 41th APDC(Asia Pacific Dental Congress) 2019에서 “Integration of oral health manpower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을 강연하였다.
- 2019년 5월, 류재인 교수가 대한골대사학회 The 7th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 제31차 춘계 학술대회에서 “Change of incidence rate in MRONJ after extended coverage by NHIS”을 강연하였다.
- 2019년 10월, 류재인 교수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안산시 수불사업 현황 및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강연하였다.
- 2019년 10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박현주, 전지은, 임아람 대학원 학생 및 이새롬, 이승현 선생이 총 5건, 공인원, 성여원, 손지우, 홍의진, 정채연, 강서리, 장다연, 위지현 학부 학생이 총 3건의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이 중 임아람 학생이 공중구강보건학 분야 포스터 발표

비경쟁부문 우수포스터, 이새롬 선생이 예방치과학 분야 포스터 발표 비경쟁부문 우수포스터로 선정되었다.

치과재료학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허동녕 연구교수가 부임하였다.
 - 2020년 2월, 나하람 선생이 권일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Injectable biodegradable gelatin-methacrylate/ β -tricalcium phosphate composite for the repair of bone defects”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365, 2019, 30-39) 외 2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19년 10월, 권일근 교수가 이재서 박사과정생, 나하람 박사과정생, 문호진 연구교수, 허동녕 연구교수와 함께 숙신화 콜라겐-피브리노겐 하이드로겔의 제조방법 외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 2019년 1월, 권일근 교수가 허동녕 연구교수, 이동현 박사, 이상진 박사, 허민 연구원과 함께 신경전극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 연구비 수주

- 권일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개발사업 (2019년 01~2022.05)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권일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사업 (2019년 07~2019년 10.)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권일근 교수가 경희대학교 연구인력지원사업 (2019년 03~2020.02)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 발표

- 권일근 교수가 ACSFall 2019 National Meeting & Exposition 에서 Injectable Gelatin-Methacrylate/ β -Tricalcium Phosphate Composite for Bone TissueEngineering의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 권일근 교수가 US-Korea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2019에서 An optimal polyblend composition of polycaprolactone/gelatinnanofibrous scaffolds for Achilles tendon 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의 주제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치의학교육학교실

- 연구비 수주
 - 방재범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9년 10.~2020.5.)의 용역 연구사업비를 수주하였다.
 - 방재범 교수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19년 6~2020. 2) 용역 연구사업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5월, 41st APDC(ASIA PACIFIC DENTAL CONGRESS)에서 ‘Achievement of dentist’s competency of national level and satisfaction on basic dental education course’ 주제로 구연 발표하였다.
- 2019년 5월, 대학약학회 학술대회에서 약대 평가인증 제도화 및 약평원 법인화 주요 목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임상교실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7월, 정준호 교수가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이정우 교수가 Comparison of Computed Tomography,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for the Evaluation Bone Invasion in Upper and Lower Gingival Cancers을 게재하였으며, 이외 각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권용대 교수, 정준호 교수가 ‘Current status of surgery-first approach(part III): the use of 3D technology and the implication in obstructive sleep apnea’ 을 게재하였으며, 이외 각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19년 3월 23일, 권용대 교수가 ICC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60주년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 연구비 수주

- 이정우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8.04.~2019.12.)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3월, 류동목 교수가 대한양악수술학회 창립 10주년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양악수술의 발전사 및 대한 양악수술학회’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5월, 정준호 교수가 대한골대사회에서 개최된 제31회 춘계학술대회에서 ‘Pathophysiology of MRONJ’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10월, 최병준 교수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춘계학술심포지엄에서 ‘낭종적출술 이후의 골이식술 시행여부’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9-10월, 권용대 교수가 Straumann Semina에서 ‘Straumann Roxolid, Does size matter?’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소아치과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이고은 교수가 임상조교수로 부임하였다.

- 2019년 4월,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호연 선생이 구연발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7월, 김미선 교수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2019년 7월, 대한소아치과학회 정우범 선생이 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8월, 강희찬 선생, 정민지 선생이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 2019년 10월, 경희의료원 48주년 개원기념식에서 최성철 교수가 미원임상의학상 은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0월,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우범 선생이 구연발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Three-dimensional digitalized surface and volumetric analysis of posterior prefabricated zirconia crown for children. 2019 May;43(4):231-238. 외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이효설 교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8.12.20.~2019.12.19.)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3월, 남옥형 교수가 한국접착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치료 : 수복치료의 타이밍과 방법’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4월, 최성철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어린이의 행동평가’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4월, 최성철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능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4월, 이효설 교수가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출생에서 유치열 완성까지 신생아 구강미생물총의 변화와 확립; 종적 연구’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6월, 최성철 교수가 Taiw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에서 ‘The current concept of traumatic injuries in primary and permanent tooth’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11월, ‘제2회 턱관절의 날’ 행사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 주최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Decision-Making Regarding Trauma-Related Pain in Adolesc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 Nature Sci Rep. 2019 외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학회발표

- 2019년 6월, 이연희 교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97차 IADR General Session에서 ‘Sex-related Differences in Myofascial Pain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Lateral Pterygoid Muscle after Whiplash Injury’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10월, 홍정표 교수가 푸르메재단 벡슨어린이재활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심신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음의 건강으로, 입가에 미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12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 ‘2019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종합학술대회 포스터 구연’ 에서 이연희 교수가 지도한 3학년 김정현 학생이 ‘만성 턱관절 환자의 수면의 질과 주간 졸림, 수면무호흡 간의 상관관계’, 유영훈 학생이 ‘대측의 뇌 종양으로 인한 저작근의 불활동성 위축과 턱관절 장애의 발생’ 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각각 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영상치의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송희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았다.
- 2019년 3월, 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복열, 이세형, 강주희 선생이 공로장을 수여받았다.
- 2019년 4월, 경희치과종합검진센터 개소와 함께 최용석 교수가 검진센터장으로 발령받았다.
- 2019년 8월, 오정일 선생 (지도교수 김규태)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2020년 2월, 김진호 선생 (지도교수 최용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Malignant transformation of fibrous dysplasia into angiosarcoma, Oral radiology, 2020;36:116-120 외 SCI급 국제학술지에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19년 4월, 최용석 교수가 황의환, 김성훈, 최경규, 오송희 교수와 함께 치과종합검진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3월, 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송희 교수가 구연발표를 하였다.
- 2019년 8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Dento-Maxillo Facial Radiology에서 최용석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 2020년 1월, 대한구강악안면초음파학회에 “초음파 영상의 이해강의 및 턱관절 타액선의 해부학” 주제로 최용석 교수, 오송희 교수가 핸즈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치과교정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김수정 교수가 정교수로, 안효원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강윤구 교수가 UCLA에서 1년간 해외 장기연수를 다녀왔다.
 - 2019년 9월, 김경아 교수가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신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2월, 김성훈 교수가 미국 의학 분야 논문평가기관인 Expertscape에서 교정용 고정원 관련 분야 세계 전문가 1위로 선정되었다.
 - 2020년 2월부터, 박기호 교수가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1년간 해외 장기연수 중이다.
 - 2020년 2월까지, 박영국 교수가 경희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Asymmetric nasomaxillary expansion induced by tooth-bone-borne expander producing differential craniofacial changes. Orthodontics & craniofacial research 22.4 (2019): 296-303. 외 1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안효원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초친수성 나노박막이 탑재된 다기능성 치과용 투명 구내 장치의 개발'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4월, 박영국 교수가 '2019 QS Subject Focus Summit: Dentistry'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의학 교육 문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9년 4월, 박기호 교수가 제5회 Empower symposium에서 'Current digital orthodontics in Kyung Hee University'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5월, 박영국 교수가 AAO annual session에서 'Light-accelerated orthodontic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9월, 김수정, 안효원, 김경아 교수가 1st Kyung Hee International Mini-Residency for Extended Orthodontic to Sleep을 개최하였다.
 - 2019년 10월, 김수정 교수가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한국인 성인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 대상 골격성 부정교합의 유형별 빈도분포 및 Craniofacial Phenotype의 특성화 연구'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10월, 김성훈 교수가 바이오급속교정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TAKE Principle: Update knowledge of BOS' 및 'C-Tube advanced placement and TWEeMAC IDB Exercise'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치과보존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3월, 장석우 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9년 5월, 이진규 교수가 강동 경희대치과병원 인제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인 '2기 목련교수'에 선정되었다.
 - 2019년 8월, 모소연, 최주영 선생 (지도교수 김덕수)이 박사 학위를, 부남웅 선생 (지도교수 장지현)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2019년 9월,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에 임은미 임상부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9년 10월, 경희의료원 48주년 개원기념식에서 장지현 교수가 경희의학상 연구논문부분, 김현정 전임의가 우수교직원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1월, 최경규 교수가 대한치과보존학회 차기회장에 취임하였다.
 - 2020년 2월, 이수혁 선생 (지도교수 장석우), 메이 선생 (지도교수 최경규)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Effect of Various Agitation Methods on Adhesive Layer Formation of HEMA-free Universal Dentin Adhesive. Dent Mater J. 2019 Feb 8;38(1):101-106. 외에 총 33편의 논문 및 학회 초록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김덕수 교수가 'Nanosize-Bioactive Glass를 포함한 다기능성 범용 상아질 접착제의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2019.06.~2022.02.)를 주제로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3월, 춘계근관치료학회에서 장석우 교수가 '나의 Endo 체크포인트', 장지현 교수가 '근관치료의 깔끔한 마무리, 코어수복'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노하선 선생이 포스터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4월, 제20회 Asian Pacific Endodontic Confederation에서 이진규 교수가 재생근관치료에 대해 강연하였다.
 - 2019년 5월, 춘계보존학회에서 오소람 임상조교수가 'NiTi file의 소독과 재사용'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고, 이수혁, 부남웅 선생이 수복분야 증례 발표에서 수상하였다.
 - 2019년 10월, '미안마 치과의를 위한 제2차 특별강연회'에서 이진규 교수가 '근관치료의 기본 원칙'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11월, 2019 ConsAsia에서 최경규 교수가 'Adequate Surface Treatment of Ceramic and Composite Restorations'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김현정 전임의가 신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2월, '2019 연세임상강연회'에서 최경규 교수가 '세라믹과 지르코니아 잘 붙여 보아요'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치과보철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8월, 박광만 선생 (지도교수 이석원)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2019년 12월 권공록 교수가 보철학회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2020년 2월, 김태운 선생 (지도교수 권공록), 박윤재 선생 (지도교수 김형섭), 정영철 선생 (지도교수 배아란)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Comparing accuracy of denture bases fabricated by injection molding, CAD/CAM milling, and rapid prototyping method 2019;11(1):55-64 외 24개 논문을 게재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3월, 대한디지털치의학회에서 배아란 교수가 "개별치대주 10년 동안 바뀐 것들"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3월, KAOMI 학술대회에서 정병준 선생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3월,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태운 선생이 우수발표상을 수상하였다.
 - 20019년 7월, 대한스포르치학회 제 1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지혜 선생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8월, '2019 JAGAL Academy of KHUHD Dental Implant Special Lecture'에서 이성복 교수가 "Jagal implantology"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2019년 9월, 유럽골유착임플란트학회에서 이성복 교수가 "Clinical outcomes of immediately and early loaded implants with laser treated surface: A 3-year retrospective study"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 2019년 10월,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박미정 선생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1월, 대한심미치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권공록 교수가 "삶의 질을 고려한 노인구강건강: 임플란트지치 피개치"를 주제로 강연하였고 "Full denture impression : 심미적인 총의지와 기능적인 총의치는 동일하다"에 대하여 최대균 교수와 노관태 교수가 강연과 사회를 맡았다. 이성희 선생이 우수포스터 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1월,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홍성진 교수가 "3D face scan"에 관한 주제로 강의하였다. 김진선, 주창민, 조준연 선생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12월, ITI 국제임플란트학회 Top-Down SC Seminar에서 한국회장 이성복 교수가 'Narrow diameter implant의 적응증과 시술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치주과학 교실

- 교실동정
 - 2019년 6월 허익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2019년 8월, 황현진 선생 (지도교수 신승일)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2020년 2월, 박준봉 교수가 정년퇴임하였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Tissue integration of zirconia and titanium implants with and without buccal dehiscence defects-A histologic and radiographic preclinical study. Clin Oral Implants Res. 2019 Jul;30(7):660-669. 외 1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연구비 수주
 - 2019년 3월, 신승윤 교수가 '일차 판막 폐쇄가 치조제 보존술에 있어 연조직, 경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연구비 수주하였다.
 - 2019년 5월, 임현창 교수가 국제연구단체인 오스테올로지 재단에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재생'을 주제로 중견 과학자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2019년 8월, 신승윤 교수가 '잇몸건강에 미치는 DSE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8주,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인체적용시험'을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2019년 8월, 임현창 교수가 '잇몸건강에 미치는 MAEC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8주, 다기관 위약대조 인체적용시험'을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2019년 11월, 임현창 교수가 '국내 개발 골이식재의 골형성능과 골개조 양상 평가' 연구비수주하였다.

- 학회발표
 - 2019년 5월, 정종혁 교수가 제54차 KDA 종합학술대회와 Asia-Pacific Dental Congress 2019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9월, 허익 교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치주과학회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9월, 임현창 교수가 제8회 경희시대 치주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10월, 신승윤 교수가 제5차 Asian Conference for Frailty and Sarcopenia 학회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10월, 신승일 교수가 미안마 양곤에서 개최된 '미안마 치과의를 위한 특별강연회'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11월, 박준봉 교수, 허익 교수, 임현창 교수가 대한치주과학회 제59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11월, 신승일, 홍지연, 임현창 교수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주관 하에 개최된 필리핀 치과 의사 대상 Implant & Perioplatic Surgery Lecture and Workshop에서 강의하였다.
 - 2019년 11월, 강경리 교수가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서 강의하였다.

UCLA 연수기

| 치과교정학 교실 강윤구 교수 |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이하 UCLA)의 치과대학 치과교정과에 visiting scholar로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병원의 배려로 1년의 시간을 해외에서 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CLA는 워낙 많은 교수님들께서 연수를 다녀오신 곳이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UCLA 치과대학의 탁월성에 대한 얘기를 차치하고라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보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푸르다 못해 검푸르게 보이는 탁 트인 하늘과 눈부신 햇살, 그리고 낮은 습도로 인해 호흡할 때 마다 드는 청량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방감이 들게 하였습니다.

샌타모니카 해변, 그리피스 천문대, 할리우드, 게티 센터 등등 로스앤젤레스의 많은 관광 명소들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아무리 떠들어 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기 연수를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한참을 속을 썩였었기 때문인지 출발하는 당일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 친척의 도움으로 주거지와 자동차 문제를 미리 해결하였고 나름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 지 계획도 세워 놓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미리 계약해 놓은 아파트에 도착해서 여러 서류들에 서명을 하다 보니 드디어 실감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군요. Bed bug가 나오면 알려달라는 말에 bed bug가 뭐냐고 되물어보는 촌극도 있었

습니다. 대답은 안 해 주더군요. 나중에 구글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시에도 미국에서의 신용 점수가 없어서 거절되었다가 겨우 다시 받아들여지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미국에 도착하여 은행 계좌 개설하고 신용카드 신청에서 신용 점수가 없어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내 고국을 떠나왔구나 하는 것에 완전히 실감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보험이 있느냐는 말에 없다고 대답하는 것도 참 이질적이더라구요. (장기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그건 보험이 없는 것과 동일한 취급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해 살고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에게 존경감마저 생기더군요. 이 낯선 땅, 나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이 땅에서 저렇게 곳곳이 자리잡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그분들은 지금 생각해도 자랑스럽습니다.

UCLA 교정과에서 처음으로 참석했던 세미나는 교정-외과 약교정수술 컨퍼런스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에는 교정과와 구강외과의 교수님과 레지던트들이 참석하여 증례 1례를 놓고 치료 계획을 상의하거나 치료 후 결과를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미국의 교수와 전공의 간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들었지만 직접 가서 보니 일종의 문화 충격 같았습니다. 다리 꼬고 팔을 양쪽 의사 어깨에 편하게 올리고 발언하는 구강외과 전공의를 보니 권위주의보다는 자유로운 수평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동양인이 많은 서부라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좀 남아 있는 것이고 동부에서는 더 수평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발언이 존중받아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당연한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공의의 발언에 대해 맞냐 틀리냐를 따지면서 화를 내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지식이 만든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나와 주변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은퇴하신 나이 지긋하신 노교수님이 증례를 가지고 전공의들의 치료 계획에 일일이 코멘트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식지 않는 열정에 놀랐고 (저는 지금도 벌써 귀찮은데 말이죠) 병원과 후학 양성에 재능을 기부/기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또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모습이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 미국 여행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선배 교수님들께 들었습니다. 해서 약간은 강박적인 마음으로



▲ 1년간 살던 아파트에서 바라본 UCLA의 Mildred E. Mathias Botanical Garden. Garden도 좋지만 그보다는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갔었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았던 대륙 횡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아리조나 (유타 켄트머리도 살짝) 까지는 차를 운전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말로만 들던 광활한 땅, 몇 시간을 운전해도 인적이 나오지 않는 땅을 보니 조물주의 위대하심에 전율이 느껴 지더군요. 색다른 여행 경험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애틀에서 출발하여 알래스카를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타보는 커다란 여객선에서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들, 매일 저녁에 있는 공연들과 전망대에서 보는 전경들. 저 같은 도시 촌놈이 호강을 하고 왔습니다. 다만 저량은 그렇게 맞는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갑갑하더군요. 나중에 은퇴하고 다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크루즈 여행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지만 분명 가치 있는 여행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여행은 RV car를 렌트해서 곳곳을 다녔던 여행입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내키지 않았는데 (운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 녀석이 소원이라 하여 어찌어찌 계획하여 갔습니다. 큰 차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운전은 생각보다는 할 만했습니다. 다만 일정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RV car 여행의 즐거움을 반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RV car를 잘 수 있는 자동차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되고 움직일 수 있는 숙박장소로 개념을 잡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주차하고



▲ 2020년 1월 1일 새벽부터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라가 찍은 새해 첫 일출



▲ 크루즈 여행 코스 중의 하나인 빙하 관광. 불과 몇 십년전과 비해서 빙하가 많이 후퇴하였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 없어 지기 전에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긋이 즐기면서 야외 식사와 생활을 즐겨야 했는데 RV car park를 1박으로 짧게 짧게 여러 군데 예약을 하는 바람에 낮에는 운전하고 밤에 쉬는 직업적 운전수같은 여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운전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큰 트럭 같은 차로...). 그래도 저녁에 가족이 야외에서 작은 BBQ 그릴로 고기 굽고 밥해 먹던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이젠 노하우가 생겼으니 제대로 계획 잡아서 다시 가보고 싶은



▲ 저와 4박 5일을 같이 한 RV car. 한번 주유 하면 거의 100 달러가 들어가는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 크루즈의 전망대에서 본 일몰. 저녁 노을을 보며 바다를 헤치고 잠잠히 나아가는 배는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데, 우리나라에는 RV 여행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하기가 어려우니 또 RV 여행을 하려면 또 미국이든 어디든 외국에 가야 되겠죠? 언제 또 갈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배운 지식적인 것들은 작은 것이었고 크게 얻었던 것은 계속 나를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부비대며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른 환경에 가니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그때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는지를 계속 돌이켜 보았습니다. 과거의 어리석고 좁은 생각들과 행동들을 알게 되고 반성하며 귀국하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라며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미국 연수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귀국 1개월 전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social distancing, shut down order, shelter in place order 등으로 어수선하게 보내다가 귀국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의 위험속에서 또 출근하면서 정신없이 일과를 보내다 보니 3개월이 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되고 미국에서의 마음이 희미해진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좋은 기회를 주신 학교와 병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치과대학생의 해외 자매 결연 대학 교류기 일본 오우대학

| 49기 박준성 · 김태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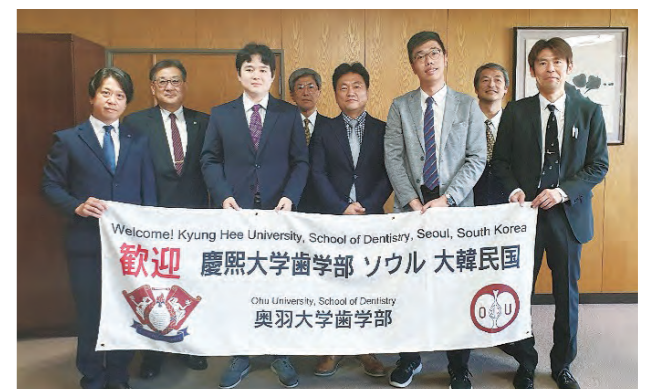
49기 박준성, 김태석 학생은 2019년 7월 16일부터 5일간 일본 코리야마시 소재 Ohu 대학의 치과대학 및 병원을 방문하였다.

Ohu 대학은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으로만 구성된 의료인 양성 대학으로, 현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써 그 규모나 실력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간단하게 캠퍼스 전체를 돌아본 후에 환영 행사를 가지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교류 프로그램에는 임상과 외래 및 기초학 교실 견학과 더불어 구강악안면외과와 함께 국내에는 드문 치과마취과가 같이 집도하는 major surgery에 참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임상과에서는 실제로 진료 과정에 투입되어 sedation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근의 명승지를 관광하고 전통 공예를 체험하는 등 학문 및 문화 교류까지 동시에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태석 학생은 “평소에 취미 생활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관심이 있는 편이었지만 학술적인 교류는 처음이었다. 현지 교수님들이나 학생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치의학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 미래의 치과의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가르침을 얻은 기분이 든다.”라고 밝혔다.

박준성 학생은 “이웃한 나라임에도 병원이나 교육 시스템에서 세세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치과마취과의 존재는 국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진정치료나 마취 중 사고를 걱정하는 환자들에게 큰 안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료의 질은 물론 환자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측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치과대학생의 해외 자매 결연 대학 교류기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

| 49기 김정욱 · 박준원 · 정보근, 50기 이민아 · 이승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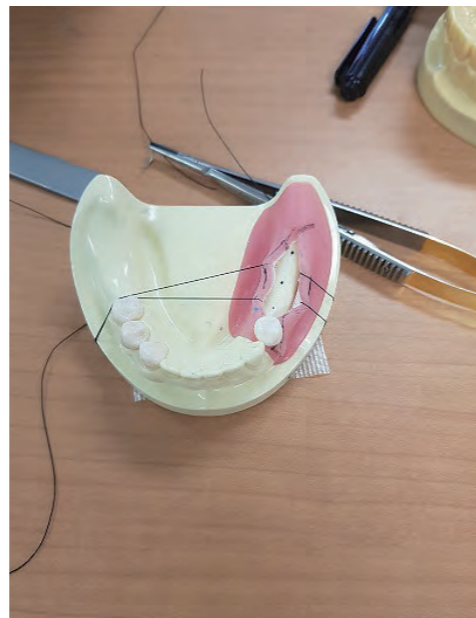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생 5명(본과 4학년 3명, 본과 3학년 2명)은 2020년 2월 5일간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후쿠오카 대학의 치과대학 및 병원을 방문했다.

후쿠오카 치과대학은 4,300명 이상의 치과의사를 배출한 치과대학이며, 치의학을 단순히 구강치료에 한정 짓지 않고 질병구조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사람의 건강을 종합 지원 하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최신식 치과병원이 지어지고 있으며, 완공 후 2021년 10월에 새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류 프로그램은 후쿠오카 대학 총장의 환영 리셉션 후, 후쿠오카 치과병원 투어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날은 기초 과학 연구실들 위주로 방문하였고, 그 이후에는 임상과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과들을 구경해야 해서 빠르게 넘어간 부분들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 안에 최대한 알차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큰 틀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슷했고,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부 몇몇 것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후쿠오카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에는 노인치과라는 과를 따로 두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께 직접 찾아가 진료를 하고 오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휴대용 핸드피스, 석션, 3 way 등을 가져가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오는 것을 본 경험은 특히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 외에도 임플란트 실습 모형에 플랩을 직접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해 본 것, 영상치의학과에서 MRI 자성을 직접 체험해본 것, 소아치과에서 특별 장비로 입술주위근육의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해본 것 등이 인상 깊었다.

이번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과 후쿠오카 치과대학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의 학술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치의학 교류의 장을 이룰 수 있었다. 다양한 일본의 음식과 문화를 현지인분들을 통해 경험해본 것도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치과대학생의 해외 자매 결연 대학 교류기 태국 마히돌 치과대학

| 49기 김주안 · 남궁진 · 심지은 · 이정린 · 전성연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생 5명은 지난 2020년 2월 3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 있는 Mahidol 대학의 치과 대학 및 병원을 방문했다.

Mahidol 대학의 치과병원은 태국 왕실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17층의 건물에 세워진 지 8년밖에 안 되어 병원 내의 시설들 모두 최신식을 자랑한다.

교류 프로그램은 환영 리셉션 후,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태국 마히돌 대학교에서는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과, Advanced General Dentistry(AGD) clinic, 교정과 등 임상과 들의 진료 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진료 현장과, 치과대학 생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성연 학생은 “이번 마히돌 대학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소한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좋았으며, 태국의 마히돌 대학교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뛰어날지 생각하지 못했다. 환자들은 병원에 처음 오면 제일 먼저 교육부서에서 치료를 받을지, 서비스부서에서 치료를 받을지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과 마히돌 치과대학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의 학술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치의학 교류의 장을 이룰 수 있었다.



치주염 진단을 위한 잠재적 구강 미생물 바이오 마커 발굴

구강미생물학교실 이재형 교수

치주염은 치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현재, 치주염은 주로 임상 검사 및 방사선 판독을 기반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0명의 치주염 환자와 62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바탕으로 구강 협측 점막과 치은 연상 치태 시료를 이용 구강 마이크로바이옴(oral microbiome)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13 phyla, 193 genera, and 527 species의 미생물 군집을 확인하고 다양한 치주염 관련 병원균을 확인하였으며, 치주염과 관련된 세균들이 치주염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확인된 8 개의 치주염 관련 세균종을 독립적인 코호트에서 임상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을 기반 예측 모델을 이용 치주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구강 협측 점막 및 치은 연상 치태의 구강 미생물 군집 프로파일이 치주염 진단을 위한 잠재적 구강 미생물 바이오 마커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주염을 비침습적으로 쉽게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치주염은 다인성 염증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0% ~ 35% 정도가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치주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치주 조직이 파괴되고 결국 치아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고령층에 많이 발병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전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주 질환은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숙주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며 이러한 치주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앞서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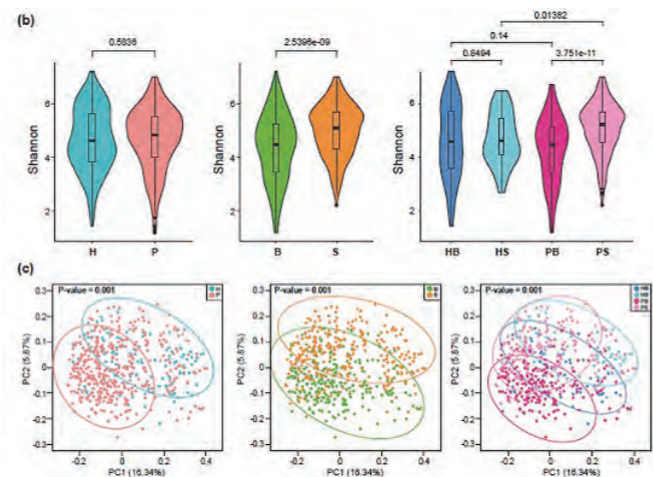


그림 1. 세균 군집 다양성 분석

한 다양한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치주염의 조기 진단 및 모니터링은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치주염과 관련된 병원균의 정확한 검출을 위해서는 주로 치은 연하의 치태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2명(치주염 환자: 210명, 정상인: 62명)으로부터 비교적 비침습적 방법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구강 협측 점막과 치은 연상 치태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 차세대서열분석 기반 16S rRNA 메타지노믹 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차세대서열분석 데이터들은 인간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HOMD database)를 이용하여 총 13 phyla, 28 classes, 50 orders, 93 families, 193 gen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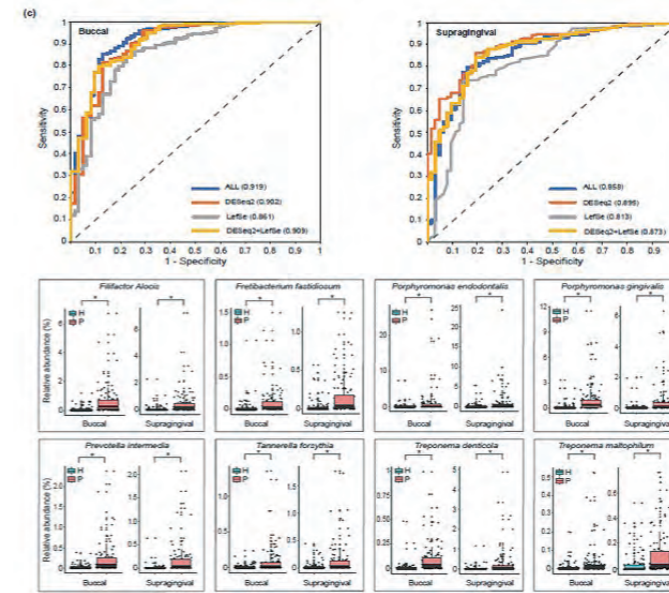


그림 2. 잠재적 미생물 생물 마커 검증

527 species으로 분류되었으며, 미생물 군집 다양성 분석 결과 시료 채집 부위 및 두 집단간 다양성(α -diversity & β -diversity)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군과 치주염 질환군 사이 차이가 나는 세균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DESeq2 및 LefSe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Porphyromonas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Treponema denticolar*, *Filifactor alocis*, *Porphyromonas endodontalis*, *Fretibacterium fastios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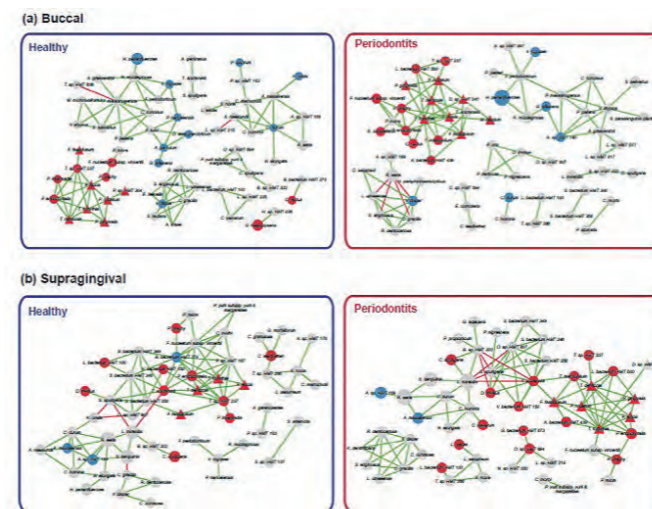


그림 3. 세균 군집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및 *Peptostreptococcus* 등과 같은 치주염과 관련된 총 8종의 세균들이 치주염 질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고, 이 결과를 포함하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 예측 모델에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임상적 평가를 위해 독립된 코호트의 시료를 이용 RT-PCR을 수행하고 검증하였다.

구강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dysbiosis)은 건강한 치주 상태에서 치주염으로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치주염 관련 병원균이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할 때 치주염 환자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치주염 환자군 특이적 네트워크모듈을 식별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였으며, 구강 내 다양한 치주질환 병원균의 고병원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치주염 병원균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균 군집안에서 세균간의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치주염 질환을 진단시 구강 협측 점막 또는 치은 연상 치태에서 특정 치주염 관련 병원체를 감지하여 치주염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연구이다. 또한, 임상학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소 침습적이고 편리한 치주염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Na HS, Kim SY, Han H, et al. Identification of Potential Oral Microbial Biomarkers for the Diagnosis of Periodontitis. *J Clin Med*. 2020;9(5):1549.

심미적이고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 형성을 위한 연조직 증강술

치주과학고실 임현창 교수

그 간의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재생에 대한 임상가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대부분 경조직 재건에 쏠려 있었다. 임플란트 주위로 일정 면적 이상의 경조직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관심의 정도는 너무 편향적이지 않았나 싶다.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임플란트 주변에 경조직이 충분하더라도 심미성이 떨어지는 경우들,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임플란트에 있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이 그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경조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양질의 충분한 연조직으로 덮여 있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출간되었던 수많은 연구들의 방법론은 전통적인 조직학적/조직계측학적 방법, 전산화 촬영 방법 등 이었고 이 방법들은 경조직을 평가하고 정량화하기에 효과적이었던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연조직을 평가하는데 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조직에 대한 분석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 광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면서 연조직 상태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 졌고, 이는 치주조직,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각화조직 증강법 |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연구는 치주적 관점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조직 질 증강(각화 점막 증강)이고 다른 하나는 연조직의 양 증강(점막 두께 증강)이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염증에 취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각화 점막이 필요하고 임플란트 주위골의 흡수를 막고 심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정 두께의 점막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들 테마를 위해 현재 국제 연구 단체인 Osteology foundation, 한국연구재단, 민간기업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세 가지 연구를 진행 및 기획하고 있다.

1) 어느 시점에 연조직 증강을 해야 하는가?

“Dimensional ridge volume changes following tooth extraction, implant placement and soft tissue augmentation procedures: influence of timing of implant placement and type of soft tissue graft.” 라는 주제로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세대학교 치주과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현재 치과 임상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식립 프로토콜은 크게 immediate, early, late implant placement 로 나뉘어 지는데, 각 경우에 모두 연조직 증강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연조직 증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관련하여 baseline 조직 상태가 다

| 연조직 체적 증강법 |



르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immediate implant의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치주골의 흡수가 추후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하는 상태이고 late implant의 경우에는 모든 치유가 끝난 상태일 것이다. 각 경우 연조직 이식의 효과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또한 자가 연조직이나 연조직 대체 물질같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이식 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모든 점을 임상연구에서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며, 기초 자료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성견 모델을 사용하여 4개의 임플란트 식립 프로토콜, 2개의 재료를 한꺼번에 비교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광학적 데이터, 방사선학 데이터, 조직학적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분석 중에 있다. 이 연구는 비록 전임상 연구이긴 하지만, 임상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결과를 통해서 보다 예측성 높은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가 조직 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연조직 이식 분야에서 자가조직 이식편은 gold standard 이다. 하지만, 구개부나 상악결절 부위에서 이식편 채취는 항상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고 의사에게는 부담감을 준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약 3-4 종류의 연조직 대체 물질이 개발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자가 조직을 대체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 수많은 화장품 광고들이 눈에 들어 왔고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는지 찾아보게 되

었고, 이를 치과에도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소위 anti-aging 기법이라고 다소 거창하게 명명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후보 물질들이 임플란트나 자연치 주위의 연조직 증강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한국 연구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2020 - 2022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후보물질의 성능이 연조직 증강술에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우선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중이다. 만약 후보 물질이 예상에 맞는 성능을 발휘해 준다면,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치과에 도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기존 연조직 대체 물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치료 과정은 적절한 적응증 하에서 시행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재료적 측면에서는 술기를 조금씩 변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임상적 경험에 의해, 연조직 대체 물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수술적 기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를 임상 시험에서 증명하고자 민간 기업으로 재료를 제공받아 임상 연구를 기획 중에 있다. 이 임상연구의 결과는 osteology foundation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결과와 종합되어 다른 대단위 임상 연구를 기획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기초치의학자 신제원·이진용 교수



Q 지난 30여년동안 학교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제자가 있으신가요?

A 신제원교수님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교수들이 첫 강의, 마지막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저는 첫 강의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내가 1986년도 제대할 때, 3년간 시간강사를 했어요. 제대가 4월인데, 3월에 시간강사 발령이 났어요. 지금과는 다른 것이, 그 당시 제대 6개월 전은 취직도 할 수 있고, 복학도 할 수 있고, 많은 게 허용되었어요.

내가 육군 대위였는데, 첫 강의 날에 학교 휴교령이 났어요. 그 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에게도 연락 할 방법이 없었어요. 군인들이 교문을 바리케이트로 다 막아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군사정권 시절이라 휴교령, 시위가 빈번했던 시절이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 와있는지 어떤지도 모른 상태에서 '포니'를 타고 학교로 갔어요. 군에 있을 때는 가운을 입지만 밖에 나오면 사복을 입어야 했는데, 군복을 입고 가야 학교 안을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날은 군복을 입었어요. 또 수방사 주차증이 있었는데, A4용지 2/3크기의 주차증을 차 앞 유리에 끼우고 갔어요. 주저주저하면 안들여 보내줄 것 같아서 교문 앞 바리케이트로 돌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입고, 주차증을 앞에 해서 보안부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이 충성!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밀어주어서 얼떨결에 교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던거예요

그 때 치대 수업은 지금 의학관건물에서 수업을 해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엄청나게 환영해주었어요. 그렇게 처음 학생들을 대면했을 때의 감동은 굉장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실까지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있는 의대 옆 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거기는 모르고 정문만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의, 치대 학생들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 날의 강의는 너무 감동스러웠죠. 그 때문에 '내가 앞으로 교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이 열광해주었던 그 때가 항상 생각이 나서 즐겁게 33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Q 이진용교수님과 함께 기초를 전공하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신제원교수님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기초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유학간 사람은 이진용교수님이 처음이에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학을 가지지만, 그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요. 7년간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 때부터 국제화를 하신거죠. 이진용교수님은 학생 때부터 친해서 46년지기인데, 학생회를 같이했어요. 왜 기초를 택했냐 라는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면 나는 별로 기초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진용교수님은 치대 중간쯤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대단한거죠.

그 때 서울대에서 오신 교수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 해부학을 가르치신 김명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셔서 그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A 이진용교수님 신제원교수님 대신 한마디 하자면,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치과대학의 원로 교수님이자 1세대 분들인데, 그 다음 세대의 수제자가 신제원교수님이예요.

A 신제원교수님 우리나라 구강해부학회 회원등록번호가 있어요. 교수로 따졌을 때 제가 3번인데, 이진용교수님도 그래요. 치과의사로서 구강미생물학 교수는 두번째 예요. 그 때를 말하자면 운동가로서 시인,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민주화운동의 리더들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죠.

교수라는 직업도 함께 존경받던 직업이었어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때는 부와 명예보다 숭고한 의지가 더 인정받던 시절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번째로, 사립대로는 첫번째로 기초학 교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초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들 빨리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어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를 하는 것이 우둔해보이기는 하죠.

A 이진용교수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실험실을 잘 만들어주고, 연구비를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대학에 오라고 하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내가 졸업한 학교 학생들을 돕고 가르치는게 더 중요할 때였어요.

A 신제원교수님 전통과 규율이요 그때는, 우리 시대는 모든 게 Hierarchy였어요. 나는 교육학을 부전공해서 이제는 자율성, 학생자기주도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15년 전에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 치의학교육평가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2, 3대원장을 했는데, '의사양성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인증한 자율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또 의료법 제 5조.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만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A 이진용교수님 나의 경우는, 임상에서는 치주를 좋아했는데, 그래도 기초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신 교수님의 strength가 교육학이라면 나는 연구였는데, 학생들한테는 말을 잘 안했지만 내 연구의 초점은 vaccine이었어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또 하나를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과를 정할 때 단순하게 재미, 또는 돈 그런 것 때문에 정하는 것 보다 '내가 치과, 치의학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조금 더 거창한 뜻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과에 들어가면 더 많은 발전이 있겠죠. '내가 왜 이 전공을 해야겠다'를 생각할 때 단순히 취미, 흥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Problem identification, '문제가 무엇인데, 어떻게 하면 그에 대해서 Advanced study를 해보고, 해결해나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Q 학교를 떠나며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신제원교수님 옛날에는 전통과 규율이 교육의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옛날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랐는데, 요즘은 졸업해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다져갔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한마디로 Dental professionalism인데, 그런 소양을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치과의사로서의 긴 세월, 여러분 세대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진료실에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철학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Carpe Diem'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를 즐기고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전통과 규율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여러분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쌓아갈 역량, 마음가짐을 졸업 전에 해야한다는 거죠.

A 이진용교수님 Professionalism에 대해 방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미생물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운 것도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면 다되느냐'와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치과의사인데, 환자가 왔을 때 적어도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의과 쪽에서 생각해보면 내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A 신제원교수님 교육학적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가 역량기반 학생 자기 주도 학습이예요. 지식, 기술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나 하면 환자중심 교육이예요. 태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평생 환자를 보는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졸업 전 교육과정에서는 졸업 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Professionalism을 갖추어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갖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공부할 때부터 스스로 교과목을 연계시켜서 공부하고, 그것이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applied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교과서나 reference를 근거로 해서 공부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졸업 후 독립 진료를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2019.03.-2020.02.)

동창회 이사회 동정

2019년

03.06. 운영위원회

장소 : 매드포갈릭도곡
 참석 : 안민호, 최중우, 최대영, 조선경, 최재용, 윤종상, 김정현, 김소현

03.18. 경희대학교 학생회 임원 간담회

장소 : 마리채 노랑통닭
 참석 : 안민호, 최대영, 최재용, 윤종상, 김정현, 박기호 외 학생 9명

04.10. 2019 초도이사회

장소 : 명동 동보성 및 오비타입
 참석 : 안민호, 정재규, 김세영, 권공록, 정진, 최대영, 조선경, 이상훈, 최재용, 윤종상, 정기훈, 김정현, 김수진, 함동선, 김미경, 최유성, 최영림, 최재용, 이민정, 박기호, 어규식, 김소현 (22명)

06.02. 경희치대 동창회 자선 골프대회

장소 : 실크밸리 GC (경기도 이천시)
 참석 : 안민호, 최재용, 김정현

06.16. 전국 치대 친선골프대회

장소 : 블루헤런GC
 참석 : 선수- 최중우, 조남성, 이성만, 허기회 임원- 안민호, 최대영, 최재용, 김소현, 정철민, 김종환

08.12.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전모임

장소 : 샹그라 키세츠
 참석 : 안민호, 조선경, 최재용, 권태훈, 권공록 연자 및 실무자 9명

08.28. 회장단회의

장소 : 대도식당 강남대로점 비스트로모브
 참석 : 안민호, 조선경, 최재용, 김정현, 김소현

09.11. 고황치전

장소 : 네오르네상스관 마구로준
 참석 : 안민호, 권공록, 최대영, 최재용, 김소현

09.27.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장소 : 일일향 1호점 관부치킨
 참석 : 안민호, 조선경, 최재용, 윤종상, 어규식 치의신보유시운, 치과신문 김인혜, 덴탈포커스서양권, 건치 안은선

10.09. 경희치대 여자동문회 골프대회

장소 : 일동레이크CC
 참석 : 안민호, 최대영

10.27.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장소 : 강동 경희대병원 대강당
 참석 : 동문 등 389명 등록

10.30. 동창회 임원 치전원 졸업준비위원 간담회

장소 : 압구정 아루
 참석 : 동창회 임원- 안민호, 정진, 최대영, 조선경, 최재용, 윤종상, 김소현, 김정현, 박기호, 김경아
 출준위원 : 권윤중, 양재신, 류재하, 고영창, 성기원 김희운

11.06. 2019년도 회무감사 및 학술대회 품평회

장소 : 답십리 이상갈비
 참석 : 마경화, 안민호, 최대영, 조선경, 최재용, 윤종상무, 김정현, 김소현

2019년도 감사 및 고문단회의

장소 : 답십리 이상갈비
 참석 : 마경화, 안민호, 최대영, 조선경, 최재용, 윤종상, 김정현, 김소현 고문단

11.27. 제 48차 정기총회

장소 : 동보성
 정기총회(회무·결산 및 감사보고, 정진 신입회장 선출) 및 장학금 수여식

12.11. 동창회, 병원장, 학장 및 48회 졸업생 간담회

장소 : 경희치대 학장실
 참석 : 정진, 윤종상, 김소현, 김정현, 황의환, 권공록, 어규식, 권용대, 박기호, 김경아 48회 권윤중, 류재하

2020년

01.08. 경희대 신년교례회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 : 정진, 조선경, 김미경, 윤종상, 김정현 (수상- 조선경)

01.15. 국가고시 시험장 격려방문

장소 : 용산공고
 참석 : 정진, 박관수, 윤종상, 김소현, 김정현, 권공록, 어규식

01.16.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동창회 입학식

장소 : 더리센즈동대문호텔
 참석 : 회장단, 임원, 교수, 후보훈, 안지환 졸업생 등 총 67명

01.17. 고문단회의

장소 : 서대원
 참석 : 정진, 정재규, 김성욱, 정철민, 홍정표, 김세영, 나궁균, 안민호, 김소현

동창회원 조사/경사

2019년

- 03.03. 18기 김부년 모친상 경남 함안 새롬요양병원 장례식장
- 03.11. 14기 김선호 빙모상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 03.26. 12기 정용식 부친상 경주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 04.01. 27기 김혜진 부친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4.01. 28기 최병준 빙부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4.05. 19기 김형찬 모친상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 04.08. 36기 윤지영 부친상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
- 04.16. 15기 지정호 모친상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
- 04.22. 17기 구한미 부친상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 04.27. 21기 허인식 부친상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 05.05. 8기 김원겸 본인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05.12. 16기 배일환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05.13. 20기 윤인중 부친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5.22. 15기 한혜숙 시모상 성남시립 장례식장
- 05.22. 17기 고건호 모친상 성남시립 장례식장
- 06.14. 1기 김여갑 부친상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 06.21. 27기 이선영 부친상 광주 보훈병원 장례식장
- 06.24. 8기 최중철 모친상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 06.26. 16기 박성규 부친상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 06.26. 20기 김미경 시부상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 06.26. 15기 전성근 부친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6.27. 14기 노용익 모친상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 07.02. 13기 김기태 빙모상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 07.02. 14기 전윤옥 모친상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 07.02. 25기 박준수 본인상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 07.02. 27기 김우영 부군상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 07.05. 23기 오승교 빙부상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 07.10. 8기 이창진 빙부상 청주 하나병원 장례식장
- 07.16. 26기 김태형 모친상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 07.19. 18기 오현주 모친상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 07.21. 10기 이윤중 모친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7.26. 13기 문영환 빙부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7.28. 10기 홍석진 본인상 광주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 08.02. 6기 성경미 부친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08.02. 6기 박창양 빙부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08.07. 14기 정연식 빙모상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 08.07. 5기 이어림 본인상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 08.07. 10기 강승구 부친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08.15. 16기 이을재 빙모상 부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 08.15. 24기 주용진 모친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8.29. 22기 박재홍 부친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09.07. 10기 조영주 모친상 순천 성가톨릭병원 장례식장
- 09.17. 18기 김진오 부친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 09.19. 24기 류승만 부친상 통영 장례식장 승례관 국화실
- 09.28. 7기 조을훈 모친상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 09.28. 12기 조승용 모친상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 09.30. 12기 김재오 빙부상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 10.10. 14기 김정우 부친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12.07. 21기 김경화 모친상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 12.12. 23기 박순정 시모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 12.16. 21기 라기욱 모친상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 12.23. 20기 김규남 부친상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 12.25. 21기 노상호 부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 12.27. 17기 이영준 빙모상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0년

- 01.01. 11기 백영완 부친상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 01.13. 15기 김선미 모친상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 01.16. 15기 오인종 부친상 대전성심병원 장례식장
- 01.20. 명예교수 이상래 빙모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1.22. 24기 권태훈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1.29. 05기 김용구 모친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02.02. 21기 고광민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02.19. 18기 정형근 모친상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 02.24. 25기 이은준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 02.24. 27기 이계복 빙부상 실락원 경기 장례식장
- 02.25. 16기 김경준 빙모상 광주광역시 구호전 장례식장
- 02.25. 16기 이정준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전기금 입금 (2020.02.28 기준)

1억원 이상	권규상 안영자 이창진 허정욱 (주)덴티움 (주)신흥 (주)오스템임플란트 치과대학15기동문회
7천만원 이상	곽약훈 김은철 김학찬(센터럴청원치과의원) (주)비스코덴탈아시아 사회복지덕영재단
5천만원 이상	이재광 박창건·유성희 시카고치과병원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 치과대학동문회(지준수 외)
3천만원 이상	신용범 전요한 김희성 정성민 사회복지법인건아재단 굿월치과병원덕천 치과대학 치과보철학 교실 입구정 사랑의치과의원 굿월치과병원하단 치과대학 대전지역동문회 (주)자-씨 코리아 김성기치과 (주)모르페우스 치과대학16기동문회 치과대학24기동문회
2천만원 이상	박영국 박준봉 문정기 이근혁 김용래 고철수 권영혁 고광수 정극모 김영석 김 은 이명옥 최병기 (주)예남아이앤씨 경희치과병원 미치과교정과 치과의원 경희대학교 치주과학교실동문회
1천만원 이상	공희정 권궁록 김경선 김광철 김규남 김민성 김성욱 김승윤 김여갑 김영훈 김임남 나성식 류동목 박능석 박양제 박주연 박태용 백두흠 변 옥 서광원 송요선 신재원 신한식 오구환 오우식 유영선 이광섭 이규원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성복 이 윤 이진용 이철원 이한우 이현우 장상건 장지현 조영욱 최대균 최영철 한만형 허 익 홍선희 홍성준 황의환 김윤준 최효영 한정희 (주)약어미디어 굿월치과병원서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지부(경기도치과의사회) 미주치과의원 오우대학 이앤장치과 참조은치과병원 최재영치과의원 치과대학 12기동문회 치과대학 13기동문회 치과대학 19기동문회 치과대학 22기동문회 치과대학 2기동문회 치과대학 3기동문회 치과대학 6기동문회 치과대학 9기동문회 치과대학 수원지역동문회 큐플란트치과 태평플러스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조종만(베스필치과의원) 치과대학1기동문회 치과대학 5기동문회 치과대학 26기동문회
1천만원 미만	강기현 강남현 강대인 강백면 강수경 강승구 강승훈 강윤구 강은정 강정백 강주성 강철규 강한중 강해성 고건호 고광준 고병용 고봉진 고수진 고영훈 고일혁 고진환 고창배 고천석 고 현 공선식 공순현 곽용훈 곽춘길 곽호정 구분룡 구 영 구재용 구재우 구중회 구한미 권구현 권규원 권기열 권수갑 권순용 권용대 권일근 권정은 권태훈 금구석 금미연 기대석 김경미 김중선 김경아 김경아 김경연 김경용 김경준 김광식 김광휘 김교철 김귀원 김기문 김기철 김기태 김남구 김남중 김남중 김달하 김 덕 김덕수 김도완 김동기 김동호 김동환 김동환 김명진 김문기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방수 김보근 김보근 김보선 김보혜 김복래 김복준 김복현 김판식 김상근 김상석 김상우 김상일 김석용 김석훈 김선규 김선미 김선영 김선욱 김선호 김선희 김성길 김성민 김성용 김성원 김성일 김성진 김성철 김성환 김성훈 김세영 김세일 김소영 김소현 김수강 김수진 김수철 김수환 김승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안철 김영기 김영득 김영민 김영일 김영진 김영찬 김영택 김옥련 김옥현 김 은 김용구 김용준 김우찬 김원경 김원경 김원경 김원진 김윤홍 김윤희 김은정 김이철 김인근 김인수 김인철 김인화 김일환 김장욱 김재구 김재수 김재승 김재오 김재원 김재일 김재철 김정목 김정우 김정희 김종규 김종업 김종하 김종현 김중호 김중환 김준현 김중충 김지수 김지영 김지태 김진영 김진철 김진호 김철순 김철중 김충진 김충길 김태신 김태연 김태형 김태형 김택성 김판식 김필수 김학동 김해근 김항경 김혁수 김현경 김현경 김현애 김현호 김형남 김형식 김형섭 김형진 김형찬 김혜경 김혜란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김홍기 김희중 김효중 김훈희 김홍모 김희광 나경균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상욱 남욱형 남재형 노관태 노대현 노성춘 노영익 노은희 노희정 류경희 류길주 류중균 류창수 류호경 류호철 류 훈 마경화 모규엽 모덕진 목지은 문인연 문수인 문영훈 문용환 문재룡 문항진 문희현 민경민 민경식 민관순 민병순 민선희 민호기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규출 박기범 박기현 박기호 박남수 박노희 박도양 박동원 박동진 박동호 박두중 박미애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진 박상정 박상훈 박상준 박영주 박선영 박선희 박성규 박성규 박성동 박성원 박성준 박승이 박수배 박수진 박순건 박순정 박승훈 박영수 박영주 박용덕 박용순 박용호 박원규 박은기 박인숙 박인호 박일해 박재석 박재춘 박재현 박재홍 박정선 박정용 박정호 박준섭 박준수 박지원 박지혜 박지희 박진우 박창진 박창훈 박철우 박철제 박춘배 박철성 박태용 박한수 박 현 박현석 박현욱 박호영 박호정 박희경 박희찬 반대환 방재범 배기창 배이관 배영수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동준 백상규 백영길 백영완 백장현 백종욱 백종은 백준호 백 진 백현준 백효찬 변대진 변현홍 부용철 사영철 서경성 서경숙 서남영 서두교 서영문 서영훈 서윤원 서재승 서찬호 성낙도 성락진 성영주 소용섭 손민지 손세일 손신영 손원영 손일수 송국현 송민재 송성국 송영보 송윤현 송은면 송은주 송재만 송재혁 송제선 송창준 신강섭 신동근 신동근 신동근 신동렬 신동진 신 명 신민철 신민호 신승윤 신영림 신완용 신용문 신의중 신일철 신정희 신중호 신현택 안광남 안광식 안근국 안기동 안민호 안병규 안수진 안은영 안장원 안현준 안효원 안희용 안희진 양경돈 양광모 양승춘 양승춘 어규식 어수철 엄영호 엄찬용 엄상국 오나희 오문영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세웅 오세운 오승교 오승환 오유리 오재권 오정란 오정진 오정환 오주영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오현주 오희탁 우승철 우이형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원미영 원현두 위진욱 유경민 유광익 유대영 유상혁 유석규 유선렬 유선중 유영선 유용균 유용조 유인영 유주현 유지훈 유충현 유하균 유형열 유희승 윤경도 윤덕상 윤동호 윤두근 윤민희 윤병욱 윤석우 윤여진 윤옥병 윤원자 윤용섭 윤원우 윤인중 윤종일 윤창구 윤형진 윤혜영 이근욱 이건중 이간주 이경숙 이광훈 이광재 이규용 이규찬 이규찬 이극우 이극호 이남호 이대승 이대우 이대식 이동식 이동현 이만섭 이명성 이미경 이백수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래 이상복 이상은 이상주 이상찬 이상철 이상태 이상호 이상훈 이석원 이성만 이성철 이세중 이세준 이수미 이수연 이수영 이수옥 이수인 이수임 이승규 이승엽 이승춘 이승택 이승훈 이시원 이연수 이연신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영준 이영훈 이영희 이완규 이용찬 이용호 이용호 이우석 이원섭 이원철 이원화 이은준 이을재 이인석 이인석 이재찬 이재학 이재홍 이정민 이정열 이정욱 이정행 이정현 이정호 이종규 이종석 이종인 이종태 이준열 이지민 이지혜 이진표 이창규 이창진 이창수 이창복 이창재 이창복 이태수 이태호 이필재 이하형 이한주 이현주 이혜수 이현경 이현석 이혜영 이 호 이호현 이화연 이효실 이희정 이희정 임경석 임경석 임계수 임기호 임병진 임상욱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용호 임인학 임중성 임택택 임태수 임호남 임호섭 임종재 장건택 장미정 장봉렬 장상수 장성진 장수일 장영명 장영배 장우익 장우혁 장원중 장윤성 장정태 장주환 장지현 장철민 장현주 장 훈 장희용 전석열 전성근 전성진 전양현 전영신 전창환 전진학 전찬덕 정관희 정규림 정대현 정도영 정동진 정미현

정민수 정새별 정선모 정성진 정수봉 정연식 정영진 정용구 정용복 정용식 정은봉 정익산 정인고 정인영 정재규 정종만
정중혁 정주성 정준호 정지향 정창권 정 철 정철민 정형근 정형주 정희일 제한봉 조경환 조규석 조남성 조동석 조민구
조민우 조병도 조상원 조성국 조성열 조성일 조성천 조세중 조세형 조승제 조영주 조영진 조윤숙 조의현 조인교 조인숙
조재우 조정근 조종만 조종문 조준영 조진영 조진호 조태희 조한국 조해성 조호구 주상환 주성숙 주용진 주효진 지상진
지유진 지정호 지준수 지찬동 진대현 진택현 차덕선 채영원 천강정 천무철 최경규 최근락 최근준 최기운 최대영 최동훈
최영애 최문철 최병준 최병환 최부병 최상돈 최상호 최성백 최성연 최성철 최수형 최승규 최승모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영심 최영철 최용석 최원재 최유진 최인식 최재영 최재혁 최정규 최정윤 최주영 최준규 최중실 최진용 최창규 최현수
최현용 최호근 최호수 최호영 최호영 최홍식 최홍영 최효영 하대주 하지용 한기범 한기협 한기협 한동인 한동호
한무현 한문식 한봉식 한성구 한수희 한승완 한용환 한정희 한지영 한창규 한혜숙 한 훈 한휘철 함동선 허성윤 허 정
허정선 현원섭 홍동희 홍성태 홍영안 홍정아 홍정표 홍진표 홍해룡 홍호철 황선달 황용구 황유숙 황윤태 황의관 황재상
황정환 황진욱 황형주 황혜욱

(사)대한턱관절학회 (주)광우메디스 4월31일치과 KD치과의원 강남현대치과 강동가람치과의원 경희치과의원 경희치대동창회 계산청원치과의원
골드치과 광명리빙웰치과의원 광산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구치과의원 굿월치과병원 권호진치과의원 그랑 치과 교정과 치과의원
그린치과 기독교 김명환치과의원 김병우 치과 김옥진치과 김은희치과의원 김정수 치과의원 김형진치과의원 남포치과의원 노벨치과의원
노치과의원 뉴욕 BNS 치과의원 뉴욕가이드치과 뉴욕바르라인치과의원 뉴욕치과 뉴욕치과 뉴욕치과의원 다정한치과 닥터변치과의원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더나은치과 더바른이치과교정치과의원 덕수치과 동산치과의원 드림빌딩(서남영) 르네상스치과 명천가정의원
모마치과 모아치과병원 미건치과의원 미담치과의원 미래치과 미소가 밝은치과의원 미소누리치과의원 미소씨티치과의원 미주치과의원
바른이만들기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바른이바른얼굴 치과교정과 바른이치과 바이란트치과 박기범치과의원 박상현치과의원 박대진치과의원
박선치과 발안치과 백이부부치과 베스필치과의원 부부미치과 부일치과 부평청원치과 분당뉴욕치과 사람인치과의원 산본나란이치과
상아치과의원 서산예치과 서울다인치과의원 서울상생내과 서울채움치과 서울현대치과의원 서인천뉴욕치과 석치과의원 성모치과
세영치과의원 세종고은이치과의원 센터럴치과 센터럴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송림치과의원 스트라우먼탈코리아 스포츠치의학연수원
시엘에프기공소 신기치과 신세계청원치과의원 신혜련 신치과 아이비치과 안양사과나무치과 압구정공릉치과 양명중치과 양명하나로치과의원
에이원치과의원 에이플러스치과의원 연산치과의원 연세치과의원 연수준치과의원 예은치과의원 예인치과 오병호치과의원 오승훈치과의원
용치과의원 우리치과 우리치과 우암치과의원 웰니스치과의원 유니온아이치과의원 유니온치과의원 유티치과의원 윤석우치과의원
윤인택치과의원 은혜부부치과 이경훈치과 이로운치과 이봉훈치과 이상호 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이재준치과 이즈치과
이지원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채동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이튼치과 이희정치과 인치과 일산예치과 임길웅치과의원 자연미소치과
장영민치과의원 장치과의원 전치과의원 정동진치과 정발산사과나무치과 정성욱치과 정연진치과의원 제일부부치과 조은수치과의원
조재민치과의원 종로치과의원 (주)자영메디칼 주안청원치과 중동네이비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지동욱치과 진해에플치과 참조은치과
참조은치과 청구치과 청담부부치과의원 청담부치과의원 청원치과의원 최귀현치과 최신치과 최원침치과의원 최창규치과의원
최현영치과의원 치과대학 16기 동문일동 치과대학 1기동문회 치과대학 1회 졸업생일동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큐치과의원 큐프라이인하치과 토론도 치과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평화치과 포항이살림치과 푸른하늘치과 프랜치치과의원
하버드림치과의원 하안새누리치과 하안미소치과 하정상 치과 한마음치과의원 한수치과의원 한용환치과의원 한재형치과 함께하는 치과
행복삼은오치과 행복치과 허브치과의원 허지과의원 현대 최과 현대치과의원 홍선생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화인치과병원 힐링치과

(2019.03~2020.02 기준)

1억원 이상	권규상
3천만원 이상	(재)신흥연송학술재단
2천만원 이상	미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주)오스템임플란트
1천만원 이상	김 은 이철원 정성민 홍성준 경희대학교 치주과학교실동문회 (주)덴티움
1천만원 미만	공선식 구중회 권궁록 권일근 김경연 김광철 김달하 김덕수 김미선 김성기 김성원 김세일 김안철 김영민 김민철 김재일 김중하 김태진 김해근 김형섭 김혜란 남상욱 남욱형 노관태 노성춘 노희정 류동목 민경민 박기호 박능석 박성희 박영수 박용순 박정용 박희찬 방재범 배이관 백창현 성영주 신승윤 신일철 신재원 안민호 안현준 어규식 엄상국 오구환 오승교 유대영 유인영 윤형진 이건중 이공훈 이극규 이근혁 이상호 이수연 이재광 이혜승 이현식 이현우 이혜영 이효실 임성수 정극모 정용복 정인영 정준호 정지향 정철민 조성일 조성천 조세형 조종만 조진호 최경규 최대영 최영애 최성철 최승규 최용석 한기범 한성규 한용환

(사)대한턱관절학회 (주)광우메디스 (주)예남아이앤씨 (주)자영메디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바른이만들기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바른이바른얼굴 치과교정과 센터럴청원치과의원 스포츠치의학연수원 시엘에프기공소 예은치과의원 하버드림치과의원 허브치과의원

경희 100 GLOBAL TRUST 캠페인

경희의 탁월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 일반시민의 경희를 통한 공적 실천 실현을 위한 범경희적 성금 캠페인 GLOBAL TRUST가 경희 70주년을 맞이하여 '경희 100 GLOBAL TRUST'로 재도약합니다. 경희 100 GLOBAL TRUST 캠페인은 진정성 있는 진리 탐구를 통한 범 지구적 책무 실현이라는 GLOBAL TRUST의 사명과 비전을 경희 100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 실현하고자 재도약하는 거교적 성금캠페인입니다. 많은 동문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961-0341~2 E-mail. khsc0800@khu.ac.kr